

# 개미 “바닥치고 상승” vs 기관 “바닥 밑 지하” 엇갈린 투심

트럼프 관세전쟁에 증시 급등락 개인, 코스피 200지수 2배 추종 KODEX 레버리지 ETF 사들여 외국인·기관, 시장 하락에 베팅 KODEX 200선물인버스2X 매수



ChatGPT로 생성한 국내 증시 변동성 이미지.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주식 투자자 A씨)

“위험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적절하다.”(외국계 투자은행 B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쓴 ‘관세전쟁’이란 화살에 증시가 급등락하고 있다. 하지만 증시의 앞날을 바라보는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기관)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개인들은 코스피가 2290선으로 급락하자 ‘지금이 바닥’이란 판단에 지수 상승에 베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들은 국내 주식 비중을 줄였다. 시장 전문가들

은 “안갯속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며 신중한 시장 접근을 당부한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 200지수를 두 배로 추종하는 ‘KODEX 레버리지’ ETF를 6787억원 순매수했다. 코스닥150지수를 두 배로 따라가는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ETF도 2991억원어치 매입했다. 이는 개인투자자들이

현재의 약세장을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반등에 대비해 공격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외국인과 기관은 시장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최근 일주일 동안 코스피200지수 하락 폭의 2배를 추종하는 ‘KODEX 200선물인버스2X’를 각각 89억원, 2716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TIGER 200선물인버스2X’도 각각 104억원, 8억원 규모로 사들였다. 이외에도 기관들은 코스피200 지수를 역으로 1배 추종하는 ETF인 ‘KODEX 인버스’도 393억원어치 매입했다. 이는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엇갈린 베팅에서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안갯속이다.

시장에서는 외국인 팔자가 일시적인 분석이 있다. 트럼프발 충격이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전 세계적인 시스템 위기로 발전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

이다. 금융위기 이후 위험 자산 투자 규제가 강화돼 당시보다 자산 건전성이 좋다는 게 핵심 근거다. 금융만 보면 그럴 수 있다.

유승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보수적 스탠스를 유지해야 한다”며 “최근과 또한 주식시장 하락으로 기술적 과매도 시그널이 일부 포착되고 있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의미 있는 바닥을 확인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근거는 있다.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데다, 트럼프의 상호유예 기간 이후 미국이 어떤 추가 조치를 취할지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실제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수출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고 이는 결국 증시 전반의 하락과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잘나가던 미국 경제도 흔들리고 있다. ‘펀드멘털은 좋다’와 같은 지지대가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뜻이다. JP모건체이스의

브루스카스만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투자자 노트에서 “올해 세계 경제 침체 확률이 40%에서 60%로 높아졌다”고 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1968년 이래 가계와 기업에 대한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이라고 표현하면서 “보복, 미국 기업의 심리 위축, 공급망 붕괴 등을 통해 이번 세금 인상의 영향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틀러코스크 장세를 보이는 글로벌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이를 말해준다.

미국발 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금융시장의 충격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더 치명적이다. 영국의 민간 연구 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CEI)는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9%로 내렸으며, 바클라이(Barclays)는 1.6%에서 1.4%, HSBC는 1.7%에서 1.4%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S&P의 경우 한국의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2.0%에서 1.2%로 무려 0.8%포인트 낮추기도 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상법개정안 재의결 지연, 헌법 위반” 민주당에 일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소수주주 보호를 원한다면 형사처벌 완화문제 논의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자본시장의 주요 현안에 대해 강도 높은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대기업 유상증자, 상법 개정안, MBK 검사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며 특히 상법 개정안 재의결 지연에 대해 “헌법 절차 위반”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10일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 원장은 국회의 상법 개정안 재의결 지연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간 상법 개정안이 표결조차 되지 않는 것은 헌법 제53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위헌이라 비판하면서, 정작 헌법상 절차를 외면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에는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 불균형, 기업의 형사처벌 부담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며 “소수주주 보호를 원한다면 형사처벌 완화 문제에 대해

서도 정치권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슈가 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증권신고서 심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투자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면 “횡수에 제한 없이 반복적으로 정정 요구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유상증자 자체에 대해선 “자본시장의 본질적 기능은 자금 조달”이라고 강조하며, 방산과 조선 등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

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과거 합병이나 물적분할 과정에서 주주 신뢰가 반복적으로 훼손된 점을 지적하며 “기업이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시장을 설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한국의 소수주주는 대기업 의사결정에 깊은 불신을 갖고 있다”며, 한화가 보다 적극적인 주주 설득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산운용업계와 관련해서는 이 원장은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형 운용사 간 과열 경쟁에 대해 “외형 확대를 위한 보수 인하

경쟁이 과열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펀드 가격 산정(NAV)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투자자 신뢰를 근본부터 흔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이즈 마케팅에만 집중하고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하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상품 운용 및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도 운용 역량 강화와 책임성 제고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 운용사 MBK와 트너스 관련 검사 상황도 공유했다. 그는 “검사·조사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이미 유의미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검찰 및 증권선물위원회와 협의해 이달 중 관련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요구한 사재 출연 계획과는 별개 사안이며,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에 따라 독립적으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통상적인 증권위 안전 상정은 어려울 수 있으나,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절차부터 이달 중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미래에셋운용 채권형펀드 총 수탁고 1년새 12%↑ 50조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체 채권형 펀드의 수탁고가 50조원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일 기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채권형 펀드(MMF, 채권혼합, 재간접형 등 포함)의 총 수탁고는 50조 2000억원이며, 1년새 12% 가량이 늘어 50조원을 돌파했다.

해외채권형 펀드는 국내 주요 연기금과 정부기관의 꾸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지난해 8월 총 수탁고 9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최근 10조원을 넘어섰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해외채권형 펀드는 선진국부터 신흥국의 국채, 회사채 등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통해 시장 국면에 따른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 미래에셋증권 ‘HKEX 어워즈’ 수상

미래에셋증권은 홍콩거래소(HKEX) 주관 ‘HKEX 어워즈’에서 국내 증권사로는 유일하게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Enterprise Data Package Data Vendor(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패키지 데이터 벤더)’ 부문에서, 홍콩 법인은 ‘Top Participating Dealer New ETP(톱파티시페이팅 딜러 뉴 ETP)’ 부문에서 수상했다.

‘HKEX 어워즈’는 홍콩거래소가 아시아 금융 시장에서 뛰어난 성과와 기여를 낸 기관 및 기업에 수여하는 상이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글로벌 투자 인프라와 고객 편의성 제고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은 2023년부터 국내 증권사 중 유일하게 홍콩과 중국 거래소의 실시간 시세를 무료 제공하는 등 고객 투자 환경을 개선했다.

/허정윤 기자

## 은행 NPL 14.5조... 비은행권 부실화 더 가팔라

삼정KPMG, NPL시장 동향·전망

국내은행의 부실채권(NPL) 규모가 고금리와 경기 둔화의 여파로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특히 기업여신 부문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면서 금융시스템 전반에 구조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은행금융권의 건전성 악화 속도는 은행권보다도 가파르며,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삼정KPMG가 10일 발표한 ‘NPL 시장 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14조5000억원으로, 2022년 말(10조1000억원) 대비 40% 이상 늘었다. 기업여신 부실채권은 11조 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0% 급증했고, 가계여신도 13% 증가한 2조 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은행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0.44%로, 전년 동기(0.38%)보다 상승

했다. 인터넷전문은행(0.67%)과 특수은행(0.61%)은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2년 3분기 0.23%에서 2023년 같은 기간 0.35%로 상승했으며, 신규 NPL 발생 규모도 2조3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됐다.

은행들은 자산 건전성 관리를 위해 NPL 매각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 매각 규모는 8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비은행권의 부실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4년 3분기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2.18%로, 기타대출이 2.73%로 전체 상승을 이끌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6.4%로 전년 대비 2.17%포인트 상승했다. 상호금융조합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8.39%, 저축은행의 전체 대출 연체율은 8.8%에 달했다.

NPL 매각 시장은 NPL 전문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2024년 기준 투자 건수의 98.7%, 투자 규모의 99.8%를 전문가가 차지했으며, 평균 매입률은 2023년 초 90%를 넘었지만 2024년 4분기에는 76.6%로 하락했다. /허정윤 기자